

## 장일범의 클래식 세상만사



## 오페라 페스티벌

을 여름 휴가로 난 베로나, 잘츠부르크, 바이로이트로 이어지는 유럽 페스티벌을 백 해 10개의 공연을 봤다. 스케줄을 아예 플라이시도 도밍고의 베로나 아레나 특별공연에 맞춰 떠나서 한국 바리톤 사무엘 윤이 활약하고 있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을 보고 돌아왔다.

특히 금년은 베르디와 바그너 탄생 200주년을 맞은 해로 베로나 아레나 외오페라 페스티벌은 베로나를 극의 배경으로 하는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빼놓고는 모두 '라 트라비아타' '일 트로바토레' '나부코' '아이다' 등 베르디의 유명 걸작 오페라들만 무대에 올렸다. 그리고 특별 갈라 공연은 금년에 명예예술감독에 선정된 플라시도 도밍고에게 맡긴 것이었다.

유럽에서 가장 지상적인 페스티벌 중의 하나로 불리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베르디의 잘 올리지 않는 초기 작품 '조반나 다르코' (잔다르크)와 '나부코' '팔스터프' 그리고 '돈 카를로'를 그리고 바그너 작품으로는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를 정말 웃음이 많이 나오게끔 재미있고 환상적으로 만들어내어 찬사를 받았다. 웃길 수 있는 '마이스터징거' 조차도 때로 심각하고 지루하게 연출해왔던 기준의 연출 방법에 반기를 드는 듯 그는 쳐 음부터 매우 재미있고 독일 전통 동화인 그림 동화의 주인공들이 모두 등장하는 바겐으로 연출해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환상적인 동화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피날레에 반전이 있었다. 마치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그렇듯 이 모든 대작 오페라는 극에서 악역을 맡은 베르디의 '한 밤

출의 '마이스터징거' 등 오페라는 실험적이라기보다는 매우 빼어난 고증과 디테일이 살아 있는 의상과 절충적인 연출을 통해 대중친화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1937년생인 동독 출신의 페터 슈타인은 소비에트 러시아에 영향을 강하게 끼쳤던 연출가로 특히 그를 대표하는 것은 몽센(대중 학장장면)이다.

자신의 예술을 계속 견지해나가면서도 시대에 뛰어이지 않는 동시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한편 1970년 노르웨이 출신인 헤르하임의 연출은 바그너 오페라 작품 중 유일하게 오페라 부과적인 코믹성을 갖고 있는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를 정말 웃음이 많이 나오게끔 재미있고 환상적으로 만들어내어 찬사를 받았다. 웃길 수 있는 '마이스터징거'

조차도 때로 심각하고 지루하게 연출해왔던

기준의 연출 방법에 반기를 드는 듯 그는 쳐

음부터 매우 재미있고 독일 전통 동화인 그

림 동화의 주인공들이 모두 등장하는 바겐

으로 연출해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환상적

인 동화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피날레

에 반전이 있었다. 마치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그렇듯 이 모든 대작 오페

라는 극에서 악역을 맡은 베르디의 '한 밤

의 꿈'에 불과하다는 설정이었기 때문이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늘 연출을 대단히 중시해왔고 새로운 연출가들을 연극 작품을 통해 발굴하는 프로젝트도 해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연출의 경향은 유럽 전체 오페라 극장에 대단히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이번에 잘츠부르크에서 보여준 연출은 뉴욕 메트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아방가르드로 앞서나가지 않는 절충주의적인 연출을 보여줬고 이런 경향이 2014시즌의 세계 오페라 극장의 대세가 될 것임을 예견해 주었다.

한편 바그너 오페라만 상연하는 뉴욕과 독일문화의 전통 그리고 과격적인 연출로 늘 논란의 중심이 되어 온 바이로이트에서는 한국 바리톤 사무엘 윤이 출연한 '로엔그린'을 봤는데 깨다로운 바이로이트 청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모습이었다.

베이스 강병운, 연광철에 이어 한국 성악가로서는 세번째로 바이로이트 무대에 진출한 사무엘 윤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개막작인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주인공이 유령선 선장 네덜란드인으로 출연해 격찬을 받았다. 그는 바이로이트에서 계속 러브콜을 받아 내년에도 3년 연속

'네덜란드인'과 '로엔그린'에 출연하게 되는 경사를 맞았다. 금년에는 '니벨룽의 반지' 중 마지막 작품인 '신들의 황홀'에 베이스 아틸라 전도 출연해 바그너 음악과 독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넘치는 힘을 동시에 보유해야만 살 수 있는 바이로이트 무대에서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 성악가들의 무대 위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러웠다.

유럽 최고의 오페라 페스티벌 무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오페라는 아직도 깊이 멀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성악가와 연출가, 지휘자, 무대 미술, 분장 등 모든 분야가 어우러져 하나의 걸작을 탄생시키는 오페라는 그만큼 실패 가능성도 높지만 이 모든 것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룰 때 잊을 수 없는 큰 감동과 아름다움을 청중에게 줄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오페라 무대는 세계 수준에서 너무나 많이 뒤떨어져 있다. 하지만 좋은 성악의 지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 지휘, 무대미술, 연출, 조명 등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간다면 세계가 깜짝 놀라고 배우고 싶어할 오페라 무대가 우리 극장에서도 펼쳐질 날이 올 것이다.

〈음악평론가·KBS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DJ〉

## 법조칼럼



종서  
화엄사 수도암 주지

지난주 타임 시사 주간지를 받아 보니 신문의 거의 절반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Martin Luther King Jr.)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의 타이틀은 '건국의 아버지들, 토마스 제퍼슨과 에이브러햄 링컨과 같은 마틴 루터 킹'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미국에서 흑백 간의 인종 갈등이 극심하던 1963년 링컨 기념관 앞에 서 인종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들에게 연설을 하며 백악관으로 항의 시위행진을 했다. 여기서 행해진 연설이 지난주 타임지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 연설의 제목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입니다.

## 언어 그리고 사상의 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들이 피부색이나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그들의 능력과 성격에 따라서 대우받는 세상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전에 흑인 노예의 자손들이 노예의 소유주의 자손과 같이 정의, 평등으로 같은 책상에 앉는 날이 오기를" 등등 몇 구절이 기억납니다.

더없이 그는 이 연설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폭력에의 호소를 적극 경계하고, 평화적 주장을 통해 자기 주장을 관찰시켰습니다. 그것은 간디의 무저항주의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3·1 독립운동 선언서와도 아주 유사합니다. 3·1 독립운동 선언서에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등, 평화를 위해 불요불굴의 자기주장을 펼치되, 그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함을 적극 연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설이나 선언서 등이 지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날 미국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는 지난주 타임지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미국의 한 자경단원인 짐 먼이 지난해 흑인 소년을 살해한 사건에서 촉발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회

부되어 최근 평결이 나왔습니다. 짐 먼은 흑인 소년을 살해한 이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점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흑인 소년이 흑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인종차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그 평결도 같은 인종차별적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타이지는 짐 먼 사건과 마틴 루터 킹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대비시키면서 오늘날 미국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정의, 자유, 평등이라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물어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토마스 제퍼슨과 에이브러햄 링컨의 사상과 업적을 돌아보면서 미국 사회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제3대 대통령

으로 독립선언서와 헌법의 조항을 다진 분

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인 조지 워싱턴 등이 독립선언서에 기록하고

사상이 들어가기를 적극 주장하였으나

토마스 제퍼슨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정의, 자유, 평등의 원칙이 주요 내용이 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주장을 관찰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뒤 미국에서 특정종교가 학교에서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는 판결이 나와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은 이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하면서 가장 인기있는 교수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상은 우리들의 생활이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이러한 사상을 우리들의 삶과 말, 행동을 이끌어 가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나 간디의 무저항 연설, 우리나라의 3·1 독립선언서,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은 모두 사상이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현실 세계에 실현되어 세상을 사립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 가는 것입니다.

타임이 미국인들에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정의, 자유, 평등이라는 원칙이 미국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묻는 기사를 보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3·1 독립선언서에서 주장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선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 등이 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받기 원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꾸러미 사업의 활성화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사회 층면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첫째, 생산자의 층면에서는 다품목 소량 생산구조로 인한 일반 시장 출하가 어려운 영세소농들에게 판로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의 층면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저렴하게 받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셋째, 지역사회 층면에서는 상품구성 등과 관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간의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꾸러미 사업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농협은 전국적으로 2016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100곳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농협 암십꾸러미'라는 이름으로 꾸러미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꾸러미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관계의 경제'를 창출하고, 제철 농산물이 정기적으로 차관 가격에 접기까지 배달되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아 우리 식탁의 푸른 신호등이 켜질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 기고



박태식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본부장

## 농산물 유통의 제3의 물결 '꾸러미 사업'

조에서 보호하고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공동체지원농업(CSA)의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주 등 생활 운동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꾸러미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판, 농민회 등의 생산자 조직, 사회적기업, 자자체, 농협 등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꾸러미 사업을 펼치는 곳은 농협이다. 농협에서는 부산 강동농협·충북 오창농협·나주 남평농협·제주지역본부의 지역 꾸러미와 농협중앙회 전국 꾸러미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지난주 타임지의 주제입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충북

오창농협의 꾸러미 사업은 2005년 SK그룹

의 사내 복지 서비스로 출발하여 일반 소비자

에게도 문호를 넓힌 덕에 현재 전국 최대인 2

만1000여 명의 회원을 갖출 만큼 성장했다.

특히 전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농협중앙회의 '꾸러미' 하나로 서비스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하여 약 3개월 만에 2000여 명의 소비자가 가입할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지역의 꾸러미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바탕으로 다품목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장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유통방식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사업을 이용하는 회원가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도 꾸러미 사업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 경영정보지원시스템(ERP) 구축, 꾸러미 상자 재활용·회수체계 구축, 도농교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2014년 제정될 '(가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되고, 자자체와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농산물 유통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꾸러미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관계의 경제'를 창출하고, 제철 농산물이 정기적으로 차관 가격에 접기까지 배달되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아 우리 식탁의 푸른 신호등이 켜질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 주유소 면세유 판매가격 표시 왜 안하나

요즈음은 동네 손바닥 만한 가게에서 파는 초코파이 한 봉지에도 소비자 가격이 붙어 있다. 사람들은 비싸긴 싸건 간에 그걸 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한다.

고향에서 형님이 농사를 지으면서 면세유를 쓰고 계시다. 면세유는 기름을 붙는 세금을 감면해 줘서 농민들이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농기계를 쓰는데 기름값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면세유에는 왜 가격이 안 붙여져 있는지 궁금하다. 일반 기름은 휘발유나 경유, 등유나 같은 면에 전부 다 가격 표시가 돼있어서 기름을 넣으려 가는 운전자들은 다 알고 기름값을 알고 간다.

하지만 농민들은 면세유를 사려 가서 1리터에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주유소에서 넣어주는 데로 받아올 뿐이다. 농촌에 일손을 도와드리려 가서 트랙터용 기름을 넣을 때 요즘은 가격을 부풀려 판다고 들었다.

별거 아닌 듯 하지만 농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으면 당장 개선하는 게 옳다고 본다. 하물며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입장이니 더욱 그렇다. 앞으로 주유소의 면세유에도 가격표시를 해주기 바란다.

▲권혁조·광주지역본부 내남동

## 社說

## 공군 훈련기 사고까지, 주민들은 두렵다

광주 공군 비행장과 인접한 상무지구 주민들의 걱정이 현실이 됐다. 평소 훈련기의 굉음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 수업에도 심각한 지장을 겪어오면서 우려해 왔던 주락사고까지 터져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졌다.

지난 28일 주거지 지척에서 공군 T-50 고등훈련기 1대가 추락하자 주민들은 일손을 잡지 못할 정도로 조조해 하고 있다. 주민들은 훈련기의 비행경로를 수정해 또다시 터질지 모를 사고 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공군 비